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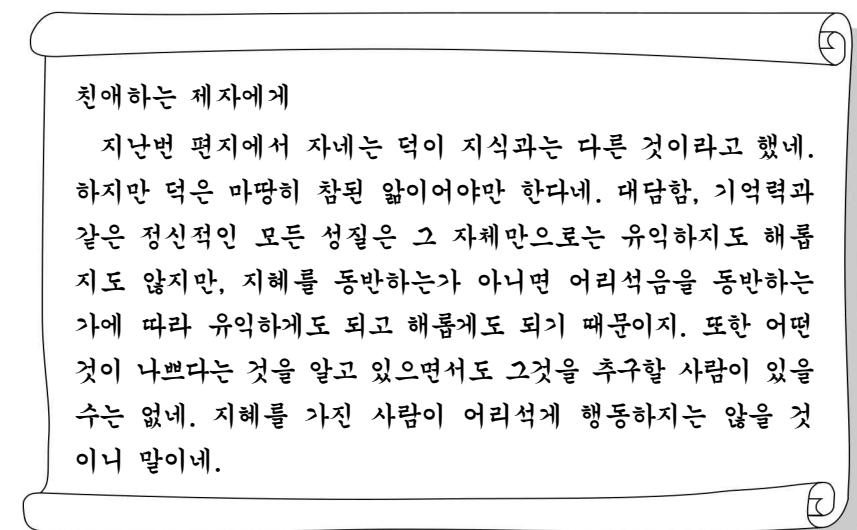
수험번호

3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자신의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돌보아야 한다.
- ② 보편적 지식은 없으므로 각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 ③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⑤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참된 깊이를 실천하지 못함을 자각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참여한 것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자신의 방식으로 영원한 이성에 참여하고, 비이성적 피조물도 자신의 방식으로 영원한 이성에 참여한다.

- ① 인간은 신의 계시 없이는 어떠한 법도 인식할 수 없다.
- ② 모든 피조물은 신의 지혜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 ③ 인간은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영원법 전부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신의 섭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 ⑤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어긋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유익한 법(法)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에 포함된다. 그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苦聖諦],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集聖諦],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滅聖諦],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道聖諦]이다.

- ① 궤적의 극단과 고행의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 ② 인간의 삶이 괴로움임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만물은 무상(無常)하고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모든 존재와 현상의 생멸에는 반드시 그 조건이 존재한다.
- ⑤ 무명(無明)에 이르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성인(聖人)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가지려 하지 않고, 공(功)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無知), 무욕(無欲)하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을: 지인(至人)의 마음 쯤은 거울과도 같다. 무궁한 도(道)를 체득하여 고요한 경지에 노닐며,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온전하게 하되 이해(利害)를 따지지 않는다. 지혜를 소유 하지도 않고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虛心] 따름이다.

<보기>

- ㄱ. 갑: 무위(無爲)로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 ㄴ. 을: 선악을 분별하면 소요(逍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 ㄷ. 을: 성인은 만물의 본래 모습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 ㄹ. 갑과 을: 만물은 생멸 변화하므로 그 근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에 시달림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반면 현명한 자는 어떤 영원한 필연성을 통해 자신과 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며,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을: 비겁한 자는 스스로 비겁하게 되고 영웅은 스스로 영웅이 된다.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자신과 대면하며, 그 이후에 인간이 정의된다. 인간은 스스로 구상하는 그 무엇이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① 갑: 자기 원인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다.
- ② 갑: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는 언제나 이성적인 삶과 대립한다.
- ③ 을: 불안은 실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 ④ 을: 인간은 주체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3

6.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理)와 기(氣)는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때는 서로 소용된다. 서로 발하는 것으로 보면 각각 주(主)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으로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p>을: 만물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타지 않은 것이 없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고 그것들이 발하여 작용하는 것도 하나이다. 어찌 정(情)을 논할 경우에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p>
(나)	

<보기>

- ㄱ. A: 이의 본연을 실현하려면 기질을 맑게 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A: 사단은 칠정 중 선한 부분과 구분되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 ㄷ. B: 이 없는 사물도 없고 기 없는 사물도 없음을 간과한다.
- ㄹ. B: 인간의 어떤 감정도 이가 발한 것일 수는 없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인간은 그들을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을 때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한다.</p> <p>을: 인간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든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p>

<보기>

- ㄱ. 갑: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ㄴ. 갑: 개인은 사회 계약 시 자신의 권리 모두를 양도하지는 않는다.
- ㄷ. 을: 구성원들의 자발적 결합을 통해서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
- ㄹ. 갑과 을: 주권은 사회 계약 당사자들이 지니며 분할되지 않는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도덕의 토대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다. 자신의 쾌락과 고통에만 관심을 두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무관심하면 도덕은 존재할 수 없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을: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이나 요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도 아니다. 도덕적 지식은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가설이다.

- ① 갑: 자기 이익과 무관한 타인의 행복은 호감을 유발할 수 없다.
② 갑: 도덕적 선악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구별된다.
③ 을: 도덕은 문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을: 도덕적 지식은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인간의 감각 경험을 초월한 선협적 도덕 원리는 없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언 명령은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그 명령이 무엇을 함유할 것인가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언 명령은 그 명령이 무엇을 함유하는가를 즉각 알게 된다. 정언 명령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 ①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도 비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② 정언 명령을 벗어나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성립될 수 없다.
③ 실천 이성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준칙으로 의욕할 수 없다.
④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⑤ 도덕 법칙은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과된다.

10. 그림의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德)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 별들이 이를 애워싼 모습과도 같습니다. 백성을 정령[政]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것이니,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여 나라의 격(格)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통치자는 법을 배제하고 도덕과 예의로만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②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보다 재화의 적음을 걱정해야 한다.
③ 통치자는 백성이 자신의 악행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야 한다.
④ 통치자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백성을 대해야 한다.
⑤ 통치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에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야 한다.

11.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靈氣]을 모시고 태어난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도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을: 서학만큼 사람을 심각하게 미혹시킨 경우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양적(洋賊)과 화친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적국 쪽 사람의 말이니 이를 따르면 옛 문물제도를 보전하지 못하고 금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보기>

- ㄱ. 갑: 한울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본래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
- ㄴ. 갑: 남녀 및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
- ㄷ. 을: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서구 열강과 서학을 배척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동이 자유로운 행동이 되는 것은 법이 시민의 의사에 부합할 때나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아니라, 시민을 사적 의지로부터 보호할 때이다. 즉 법이 시민의 의사가 타인의 강압에 의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위험성을 막아 충분히 자율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할 때이다. 자유는 주종적 지배 또는 예속이 없는 상태이다.

- ① 자유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특권층이 존재할 수 있다.
- ② 자유는 개인적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을 때 보장된다.
- ③ 자유는 다수자의 힘이 법의 힘보다 강할 때 실현된다.
- ④ 자유는 자의적 권력에 의한 간접 가능성성이 없는 상태이다.
- ⑤ 자유는 예속의 부재 상태로서 간접의 부재 상태에 의해 보장된다.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마치 몸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불길이 타오르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사단을 확충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보살필 수 있지만, 확충할 수 없다면 제 부모조차 돌볼 수 없다.

을: 사람은 날 때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를 좇아 혼란이 생기고 예의[禮]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어야 서로 사양하게 된다.

- ① 갑: 잃어버린 본심(本心)을 되찾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② 갑: 배우지 않고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소인도 타고난다.
- ③ 을: 예의는 배우고 도모하는 인위[僞]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④ 을: 누구에게나 인의(仁義)를 알고 닦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 ⑤ 갑과 을: 하늘은 도덕의 근원으로 인간의 선과 악에 감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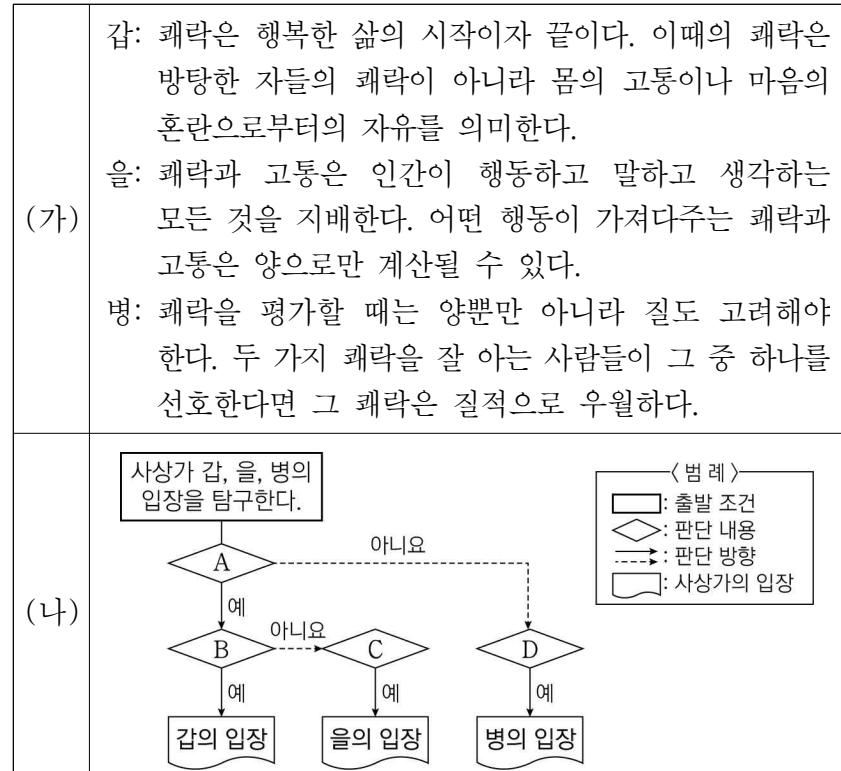
1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외적 인상들을 자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제우스의 질서에 일치함으로써 정념으로부터 벗어남, 자유,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한다.

을: 두 개의 사랑에 의해 두 개의 나라가 형성된다. 하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이다. 인간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신을 사랑해야 한다.

- ① 갑: 사건들 자체는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 ② 갑: 자연의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③ 을: 현존하는 악은 신의 본성에 있는 결함에 의해 존재한다.
- ④ 을: 인간은 최고선을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만물의 근원인 신은 이성적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1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과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가?
 - ㄴ. B: 개인의 내적 평온을 도덕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ㄷ. C: 유용성에 따라 개별 행위를 승인 또는 부인해야 하는가?
 - ㄹ. D: 공리 증진을 의도한 행위도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3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었다. 가령 선(善)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고 악(惡)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하니, 그 권능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는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선을 좋아하는 성향은 동물과 달리 인간만 지닌 성향인가?
- ②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가?
- ③ 영지(靈知)의 기호는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마음의 기호인가?
- ④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을 형성하는 시작인가?
- ⑤ 각 개인의 선함과 악함은 각자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는가?

17.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 추구 성향은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과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둔다고 최선의 세계가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갑



을

- ① 갑: 정부는 개인의 자비심에 호소하여 국부 중진을 도모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특정 부문의 재정 지출을 늘려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 ③ 을: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재화를 재분배해야 한다.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좋은 것은 여럿이지만 좋음 그 자체는 하나이다. 좋음 그 자체는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이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이 그 본질을 갖게 한다. 이는 태양과 보이는 것들의 관계와 닮아 있다.

을: 좋음은 모든 행위와 합리적 선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좋음은 행복이며, 최상의 좋음이 무엇인가는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 ① 갑: 이성은 기개와 정념 모두를 지배해야 하는 영혼의 한 부분이다.
- ② 갑: 좋음의 이데아는 현상계에 있는 좋은 것의 수만큼 존재한다.
- ③ 을: 중庸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중간 상태이다.
- ④ 을: 행복은 지적 측면뿐 아니라 욕구, 감정의 측면과도 관련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유덕해질 수 있다.

19.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천하에 성(性) 밖의 사물은 없다. 계단의 벽돌에도 벽돌의 이(理)가 있고 대나무 의자에도 대나무 의자의 이가 있기에 각각의 사물 자체에 본래 그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천하에 마음 밖의 사물은 없다. 꽃을 보지 않았을 때 마음은 꽃과 함께 적막 속에 있었으나 그 꽃을 보게 되자 그 모습이 명백해지니, 그 꽃이 마음을 벗어나 [心外]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본연지성과 달리 기질지성은 기(氣)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 ② B: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자 마음의 본체이다.
- ③ B: 이치를 궁구해 이는 것[知]과 실천하는 것[行]은 본래 하나이다.
- ④ C: 마음과 별개인 이치는 있으나 마음과 무관한 사물은 없다.
- ⑤ C: 양자는 선악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토피아의 모든 시민은 하루 6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남녀 모두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한다. 생산된 모든 물품은 공동 창고에 보관되며, 시민은 필요한 물품을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을: 공산 사회에서는 아무도 배타적인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활동할 수 있다.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식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다.

- ① 갑: 시민은 사유 재산을 축적하고자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한다.
- ② 갑: 재화는 노동 성과에 따라 각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 ③ 을: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
- ④ 을: 노동의 분업화로 인해 노동자는 하나의 직업에 종사한다.
- ⑤ 갑과 을: 개인은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